

# ‘1000대 기업’ 광주·전남에 28곳 뿐

총 매출액 24조2058억 전체의 1.3% ... 지난해보다는 0.4% 증가

## 100대기업엔 현대삼호중공업 단 1곳

현대삼호중공업·성창이앤씨·우미건설 등 광주·전남지역 28개 기업이 한국 1000대 기업에 랭크됐다. 하지만 100대 기업에는 현대삼호중공업 1곳만 이름을 올렸다. 2009년 100대 기업에 포함됐던 삼성광주전자는 올해 초 삼성전자와 흡수합병되면서 지역 기업에서 빠졌다.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기업정보서비스 ‘코참비즈’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28개사(2.8%)로, 총 매출액은 24조2058억이었다. 이는 전년 24조1082억보다 0.4% 증가했지만, 전체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중 광주지역 기업은 10개사, 전남은 18개사다. 광주 10개 기업의 총 매출액은 7조4296억으로, 전년(9조3098억)보다 20.2%(1조8802억)나 급감했다. 이는 2조5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던 삼성광주전자가 삼성전자와의 합병으로 지역 기업에서 제외되면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전남은 18개 기업의 총 매출액이 16조7763억으로, 전년(14조7984억)보다 1조9779억(1.3%)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645억원으로 전년(8610억원)보다는 35억원 늘었지만, 전국 평균 매출액 1조8936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광주·전남에서 매출액 1위 기업은 4조3166억원을 기록한 현대삼호중공업(전국 86위)이 차지했다. 2위(124위)는 한국바스프 2조9057억원, 3위(133위)는 금호타이어 2조7020억원, 4위(151위)

금호산업 2조2038억원, 5위(226위) 엘코테크놀로지코리아 1조328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어 6위(261위) 광주은행 1조1247억원, 7위(265위) 금호피앤비화학 1조0992억원, 8위(383위) 대한조선 7339억원, 9위(443위) 백제약품 6080억원, 10위(476위) 엘지엠에이 5628억원, 11위(482위) 호반건설 5503억원 등이 전국 500대 기업에 들어갔다.

광주 아이씨엔개발(655위)과 순천 엠피씨울촌전력, 순천 성창이앤씨, 광주 한국알프스, 장성 우미건설 등 5개사는 이번에 새로 1000대 기업에 진입했다. 특히 성창이앤씨는 순천에 있는 중견 플랜트 설비업체로, 지난해 설비건설업체 중 기성 실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매출도 2106억원에서 3450억원으로 63.8% 성장세를 기록했다.

매출 순위 상승 폭은 호반건설(5503억원)이 가장 컸다. 호반건설은 758위에서 482위로 1년새 무려 276계단 상승했다. 엘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352위에서 226위로 126계단, 엘지다우폴리카보네이트(5211억원)는 621위에서 508위로 113계단, 에스엔엔씨(5199억원)는 617위에서 509위로 108계단 뛰어올랐다.

반면, 남양건설(3736억원)은 279위에서 688위로 409계단 내려앉았고, 금광기업(3165억원)도 507위에서 818위로 311계단 추락했다. 삼성광주전자, 대주건설, 캐리어, 지에스건설, 대창이앤씨는 1000대 기업에서 밀려났다. 특히 건설사들의 추락이 두드러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0년 매출액 1000대기업 광주·전남 기업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회사명	매출액
1	86 현대삼호중공업(주)	4,316,560
2	124 한국바스프(주)	2,905,644
3	133 금호타이어(주)	2,701,990
4	151 금호산업(주)	2,203,788
5	226 엘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1,328,023
6	261 (주)광주은행	1,124,613
7	265 금호피앤비화학(주)	1,099,176
8	383 대한조선(주)	733,876
9	443 백제약품(주)	607,993
10	476 엘지엠에이(주)	562,733
11	482 (주)호반건설	550,268
12	508 엘지다우폴리카보네이트(주)	521,047
13	509 (주)에스엔엔씨	519,871
14	569 (주)해양도시가스	456,231
15	630 조선내해(주)	409,986
16	655 아이씨엔개발(주)	391,715
17	678 엠피씨울촌전력(주)	378,030
18	688 남양건설(주)	373,527
19	743 에보닉카본블랙코리아(주)	347,051
20	749 성창이앤씨(주)	345,368
21	793 KPX화인케미칼(주)	327,699
22	814 금광기업(주)	316,453
23	858 남선석유(주)	302,663
24	874 부국철강(주)	296,754
25	880 (주)연호전자	294,414
26	962 한국알프스(주)	268,481
27	971 금호종합금융(주)	264,654
28	993 우미건설(주)	257,151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 금호고속지부가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에서 지난 1일 복수노조가 출범한 것과 관련, 상생의 노동문화를 다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금호고속지부 제공>

## 금호고속 ‘한 지봉 세 노조’ 勞勞갈등

한국노총 소속 노조 “임단협 체결 우리만 유호”

민주노총 소속 새 노조 단협 추진 저지 나서

복수노조 허용으로 ‘한 지봉 세 노조’가 된 금호고속이 단체협상을 놓고 촉발된 노사(勞使)간 대립이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금호고속지부(기존 노조)는 11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조가 회사와 임단협을 체결한 유일한 노조임을 천명하고, 유호한 단협기간(내년 3월) 내 어떤 협상 요구도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 노조는 또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면서 제2, 제3 노조의 존재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원들이 과거처럼 명분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 비방과 어용노조 꾀책 행위, 흑색선전을 범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크아웃 사태를 맞은 지금은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비생산적이고 대결적인 노사관계가 아닌 상생의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노조인 한노총 소속 기존 노조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달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민주노총 소속 운수공공노조 금호고속지회(새 노조)가 사측과 별도의 단체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소속 새 노조는 지난해 7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네차례 파업을 벌이는 등 1년 넘게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이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상을 수용했는데도 지난 9월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금호고속 노조는 한노총 소속 기존(제1)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새(제2) 노조, 복수노조 허용으로 새로 설립된 제3 노조가 있다.

전체 대상 조합원 1918명 가운데 회사 측에 기존 노조에 내는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라고 요청한 180여명을 제외하면 한노총 소속 노조원은 1700여명, 민주노총 소속이 180여명, 제3노조가 10여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농가·농가인구 광주 늘고 전남 줄고

최근 10년 새 광주의 농가와 농가인구가 소폭 늘어난 반면 전남은 크게 감소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봄감자와 양파 재배면적의 증가세가 가장 높았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00~2010 호남지역 농업생산동향’을 보면 지난해 광주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지난 2000년 1만1960호·3만7748명에서 각각 1114호(9.3%), 300명(0.8%) 늘어난 1만3074호·3만8048명이었다. 반면 전남의 지난해 농가 및 농가인구는 지난 2000년 23만2634호·60만6419명에서 각각 6만2477호(26.9%), 21만215명(34.7%) 줄어든 17만157호·39만6204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광주·전남지역에서 선호

하는 작물은 봄감자와 양파였다. 광주의 봄감자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12ha였지만 지난해에는 54ha로 350% 증가했다.

전남도 지난 2000년 2117ha에서 지난해 2474ha로 16.9% 늘었다. 양파는 광주가 3ha에서 76ha로 2433% 증가, 전남이 8072ha에서 1만1754ha로 45.6% 증가했다. 감자와 양파는 생산비 대비 소득이 높은 것이 주요 이유였다.

반면, 2012년 매입이 폐지된 보리는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광주의 보리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612ha에서 지난해 111ha로 71.1% 감소했고, 전남도 3만9771ha에서 1만7949ha로 54.9%가 줄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특1급’ 현판 제막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이 특1급 인정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은 12일 오후 6시 호텔 현관에서 강은태 광주시장, 김홍주 광주시 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1급 인정 현판 제막식을 갖고, 건설 단계부터 광주시와의 MOU 사업으로 진행한 호텔 건립 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현지 조사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홀리데이인 광주에 대해 ‘특1등급’으로 평가

하고 인정증을 발급했다.

홀리데이인 광주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최첨단 객실 205개와 대·중·소 연회장 10개, 레스토랑과 라운지,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호텔업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마이클 윌슨 총지배인과 배한철 총주방장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 최상의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홀리데이인 관계자는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명품호텔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역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이 12일 ‘특1급’호텔을 인정받는 현판식을 갖는다. 사진 왼쪽은 특1급 현판, 오른쪽은 홀리데이인 광주 전경.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전복장이 전문점

#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